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시작
낙오되지 않는 천국 일꾼으로

지난 1월 29일 중등 1 · 2부를 시작으로 각 교회학교의 겨울성경 학교 및 수련회(이하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수련회는 교회학교의 다른 어떠한 행사보다도 교사와 학생 모두의 벅찬 관심 속에서 준비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학교의 프로그램 중에서 일순위로 꼽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수련회' 다. "수련회는 말 그대로 '수련' 을 하는 기간이죠. '야유회' 나 '캠핑' 정도의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는 시간" 이라고 김영훈 목사(고등부 지도)는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수련' 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것일까?

신앙의 집중 코스

수련회는 여국근 목사(중등1부 지도)의 지적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 기간을 통해 영적인 각성이 이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 신앙의 집중 코스인 것이다.

청년 1부는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 선포되었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자' 는 말씀을 바탕으로 '선교' 를 테마로 삼았다. "장기 평신도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한 일을 통해 함께 삶에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들고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중인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수련할 계획" 이라고 이종태 강도사(청년부 부지도)는 말한다.

체험 학습

고등부는 이번 수련회에 순교현장을 답사하게 된다. 이는 직접 순교자들의 순교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순교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제도하에서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련회는 학교교육과 일상생활의 변잡함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체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훈련

이번 대학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 되어 공동체의 삶을 훈련받고 돌아가는 계기로 삼고 있다" 라고 류병희 목사(대학부 지도)는 말한다. 또한 소년부는 협동학습위주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수련회 기간동안에 참석자들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줄로 맺어진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련회는 "학생과 교사간의 유대관계와 학생 서로간의 교제를 이루어 낸다는 점이 그 의미가 크다" 라고 김성겸 전도사(중등2부 부지도)는 말한다.

전인적인 교육

수련회는 일주일에 한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주일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장시간에 걸친 만남을 통해 서로간에 전인적인 만남과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학교생활에 소홀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업 때문에 신앙을 등한히 하는 아이들도 있다" 라고 서광진 목사(중등3부 지도)는 지적한다. 따라서 중등 3부의 경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성장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낙오되지 않는 천국 일꾼을 꿈꾸며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출발점에서 낙오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김영기 강도사(소년부 지도)의 말처럼 겨울 수련회는 한해의 각 부서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에 서로 적응하며 그 동안 교회에 소홀했던 이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져 어색함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련회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나이의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통한다" 라는 여국근 목사의 언급처럼 이는 모든 천국의 일꾼들이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년에 맞는 교회학교의 수련회에 참석시키며, 스스로도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교회학교의 부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제에 동참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2001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서광진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정해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1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이홍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신학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고뇌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결국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실존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성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과학문명에 의지하여 이러한 질문을 아예 회피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과학이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이룬다해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확장시킬 뿐, 생명의 참된 기쁨은 가져다주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오직 그러할 때만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게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 주신 재림에 대한 약속은 인간이 무엇때문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계시를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 고통과 죄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마 24,25장, 막13장, 눅21장).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사람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올리워져 의인들과 함께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예하는 기쁨을 누린다.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악의 세력은 파멸하게 되고 눈물과 슬픔이 없고, 아픔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도들은 그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소중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 놀라운 축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인기 (목사, 에바다부 지도)

Sermon for next week

Needless Grief

(Mark 16:10-11)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nd who were mourning and weeping.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One finds graphic expressions throughout the book of Mark. It's written as though Mark painted the interior of this book like a beautiful artist. In today's verses we see Mary Magdalene among choice company, "those who had been with Him". We know many of individuals, and it's interesting to observe what they are doing, and how they bear their grief. These select people that Mary went and reported to were Jesus' disciples. They were the one's who saw His ministry, heard His preaching, and experienced His presence and power for more than three years. Let's take in our hearts the wonderful picture Mark has presented to us here and carefully view the details.

An outstanding feature that comes to focus is that Jesus' disciples are shown as a sorrowful assembly. This company of people are still sad, "they were mourning and weeping" (v. 10). What a scene! We see a common mourning, abundantly expressed by tears and moaning. The very day that Jesus resurrected, the disciples' hearts were sad. Of course, they mourned because they had believed in Jesus, and loved Him; and therefore they were concerned at what had happened. They cried because they felt great loss in losing Him. They grieved because they had seen His suffering and death. Their hearts were sad because they remembered their faulty conduct toward Him, and because their hopes concerning Him were disappointed. Moreover, they lamented because they were utterly bewildered as to what was now to be done, seeing their leader was gone.

In considering the death of Jesus, there is just cause for mourning. We can mourn for Him, since our sins occasioned His death. Yet, let us mourn righteously. All too often in practicing our faith, in living the Christian life, we express unnecessary sorrow when we should have peace. We boldly proclaim our Christianity in sorrow during times of joy. We needlessly grieve when we should be rejoicing.

Mary came with the best of news. She declared the resurrection of our divine Lord. This news should remove the cause of our sorrow. It should assures us of the help of our living Redeemer, "After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Jn. 14:19). This great news secures our own personal resurrection,

Mark colors a lovely portrait of a consoling messenger. Mary Magdalene came and told Jesus' disciples that He had risen, and had appeared to her. That's the best message! She was one of them. The witnesses to our Lord's resurrection were in the same category of trust as His disciples. They were people that all the world could safely believe. They were not strangers, but individuals well known to those who heard them. Mary came with the best of news. She declared the resurrection of our divine Lord. This news should remove the cause of our sorrow. It should assures us of the help of our living Redeemer, "After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Jn. 14:19). This great news secures our own personal resurrection, "But each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 fruits, after that those who are Christ's at His coming" (1 Cr. 15:23). Plus, it brings us personal justification, "He who was delivered over because of our transgressions, and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Rm. 4:25).

Mary Magdalene was not believed by Jesus' disciples,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live and had been seen by her, they refused to believe it" (v. 11). Unbelief tends to be chronic. The disciples had not believed the Lord when He foretold His own resurrection, and so they do not believe an eyewitness who reported it. Unbelief can also be cruelly unjust. The disciples' made Mary Magdalene a liar, and yet all of them esteemed her.

There is a reassuring reflection in Mark's drawing. We are not the only persons who have moaned. We are not the only messengers who have been rejected. We are sure beyond all doubt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men! The evidence of Christ's resurrection is more abundant than that which testifies to any other great historical event. The apostles so believed it as to die as witnesses of it. Although they were very slow to be convinced, that which forced them to believe should have the same effect on us. We, of all people, have the most ample reason for joy concerning our Lord!

Today's bible verses should remind us to not think too mournfully of our Lord's passion. Let's not be too mournful about anything, now that we know that we have a living Savior for our friend. Jesus is our Savior! He is our Friend! What a wonderful, wonderful truth. Jesus is human and He is divine. As a human, He becomes our Friend. As divine, He becomes our Savior as God. He asks us to follow Him. What a soft and encouraging order. Even when we mourn, for the best and worst reasons, He still loves us, and will continue to love us to the end of the world and forever beyond. He asks us to deny ourselves, take our cross, and follow Him. He has overcome the world.

My dear friends, how many times do you sorrow when you should be rejoicing. Paul mentioned to the Philippian church while he was in a Roman jail for us to rejoice, rejoice, and rejoice. I repeat his request, and ask you to rejoice in Jesus Christ. Think about the wonderful life we have, the eternal and glorious life with our Lord Jesus. Do you really believe He has risen? Do you really believe that He died for you and is preparing an eternal home for you in heaven? Do you realize how eager He is for you to come to Him? Why are you mourning? Open your heart and let the blessing of His peace come to you. Proclaim His peace to others. As the year 2001 moves forward, I hope and pray for all my congregation members to be witnesses of peace. Amen.

김 성 관 목사

쓸데없는 슬픔

(막 16:10-11)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는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신성을 가지신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서 슬픔의 원인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구속자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 14:19).
이 위대한 소식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활을
안전하게 보장해 줍니다.

마가의 묘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의 내면을 아름다운 예술가처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들, 즉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 각 개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슬픔을 견디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전한 그 선택된 사람들은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였고, 가르침을 들었으며, 삼년 이상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마가가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했던 놀라운 장면을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고, 집중하여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

본문에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 쌓인 무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예수님을 장사지내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10절). 슬픔이 가슴에 와 닿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의 공통된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가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감성적으로 묘사했습니다.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픔에 잠긴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잃은 것을 큰 손실로 느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향하여 저지른 자신들의 실수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일들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당황하기 때문에 비통함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슬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슬픔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할 때 너무나 자주 불필요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시간들 속에 찾아온 슬픔에 대해 담대히 기독교적 신앙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할 때에 불필요하게 슬퍼합니다.

위로의 메세지

마가는 위로의 메시지를 사랑스럽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리에게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녀는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주의 제자로서 동일한 영역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온 세상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그네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전했던 부활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신성을 가지신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서 슬픔의 원인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구속자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 14:19). 이 위대한 소식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활을 안전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전 15:23). 또한, 이 소식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칭의를 가져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제자들의 불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11절). 불신은 만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은 또한 가혹하게 불법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심을 넘어선 확신

마가가 기록하는 복음의 서술에는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을 거부했던 전파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을 분명히 뛰어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어느 다른 위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증명된 것보다도 더욱더 많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을 건 증인으로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주 느리게 확신했지만, 그들을 확신에 이르게 했던 힘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과 관계된 기쁨에서 가장 충분한 이유를 가집니다.

슬퍼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수난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슬퍼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친구가 되신 살아 계신 구주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진리입니까.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서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음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최상과 최악의 이유들로 슬퍼할 때도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마지막 날과 영원한 저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뻐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슬퍼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의 기뻐하라는 권고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그의 평화의 축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평안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올 2001년 동안에도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정 희 정 (스리랑카 단기선교팀)

스리랑카에 다녀온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12일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낯선 땅에 선교를 하겠다고 간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도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아침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충현의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욥기'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도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말과 지혜의 능력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대원들의 연령은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 온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상처받은 부분을 치료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서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받은 은혜는 다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시간들, 이제는 그 시간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내내 우리 마음 속을 억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좀 더 성의있게, 더 많은 열정으로 외국인 형제들을 섬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형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어머니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나 주저함이 없이 병낫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니감보에서 만났던 맑은 눈동자를 가진 어린 영혼들. 난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2박 3일의 성경학교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떠나지만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며 사랑해 주실 거예요." 난 이렇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언젠가 저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노방전도. 찬양과 마임, 목사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스리랑카 사람들. 그 곳에서도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툰 싱할라(스리랑카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싱할라를 한 마디 한 마디 따라서 외쳤습니다. 열 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푸른 잔디에 마주 앉았습니다. 건강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 예수스 와한세 위스아스 크란느(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외치는 그들의 작은 입술은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슬림이예요, 알라를 믿어요.' 나는 그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얘들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너희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거야, 우리는 정말 잠깐 너희에게 왔지만 하나님은 쉼 없이 너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기억해 주실거야.' 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채우고, 가슴에 담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와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곳까지 오는 여정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주고 늘 푸르게 그들을 드리워 주는,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을 다 주는 이 곳의 야자수처럼, 난 스리랑카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새롭게 된 국내외국인 선교부 수련회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수련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적인 면도 그러하지만 우선 당장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분위기였다. 물론, 아직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련회를 갖는 의미를 알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동안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추위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1박2일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지, 외선부 형제들은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진행자의 지시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다. 예년과는 달리 예배시간에는 모두들 마음을 모아 경건하고자 힘쓰는 모습이 사뭇 숙연하기까지 했다. 통역기로 흘러나오는 모국어를 듣고자 귀를 기울였으며, 찬양시간에도 서툰 몸짓으로 열심히 따라했다. 무슬림 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할렐루야' 와 '아멘'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찬양 리듬에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성경의 본문을 찾아 자신들의 모국어로 종이에 써넣는 시간에는 그 열심을 따라가기에 교사들이 오히려 버거워했다.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다.

우리는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수련회 행사이지만, 1년 365일 거의 쉬는 날 없이 고된 일을 하다가 금쪽 같은 시간에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감사의 기도밖에 드릴것이 없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는 찬송소리도 다르고, 기도소리도 다르다. 예배하는 시간도 사뭇 다르다. 수련회의 주제처럼, 저들이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국내외국인 선교부)

선교소식

1. 우즈벡 단기선교팀으로 이홍성 목사와 김봉연 전도사외 6명이 1월 30일 출국해서 2월13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2. 박수인, 권영일 수단 단기평신도 선교사가 귀국했다.

전도 지상강좌 ⑥

1. 전도에 대한 오해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3. 전도의 내용 (2)
4. 결신의 의미와 내용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출발에서 보고할 때까지

a)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빌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죽음 직전에 있는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전도자들이 전도시에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행2:1-4, 3:1-10, 4:1-4, 23-31).

b) **길을 가면서도 기도로 준비한다**(살전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는 하나님까지 대적할 정도로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이다. 전도의 현장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일체의 잡담은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영혼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집중되어야 한다.

c) **단정한 옷차림과 상냥한 말은 전도에 도움을 준다.** 단정한 옷차림과 헤어 스타일, 수수하면서도 깨끗한 용모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전도자는 옷차림과 헤어 스타일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나아가 상냥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전도자의 전도멧세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도자는 훈련을 해야 한다.

d) **방문 목적과 동행인을 소개한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사이비 종파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충현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000이고, 함께 방문하신 이 분은 000입니다.' 이와같은 전도자 자신에 대한 소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안심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한다.

e)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고 하였다. 일부 전도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존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전도자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기에 이런 실수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만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f) **전도보고와 아울러 전도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눅10:17,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보고는 결신자들을 계속 양육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재교육하는 일에 좋은 기회가 된다. 나아가 아직 전도에 용기를 얻지 못하는 성도들과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

(정 현 민 목사 - 전도위원회 지도)

순교자 유적지를 돌아보고

김 경 배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가자!" 2월 20일부터 진행될 고등부 겨울수련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수련회 일정 중 하나로 순교자 유적지 답사를 계획한 교역자 일행은 사전 답사의 여정에 올랐다.

교회에서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외국 선교사들의 안식처인 '합정동 외국인 묘지'. 이곳에 들어서니 입구에 있는 커다란 안내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이 서 있고 바로 옆 공원에는 수 많은 묘와 비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 10여개국 500여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들었는데, 비문을 보니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 아펜젤러, 베델, 스크랜튼, 게일, 헐버트 등 여기저기 유명한 선교사들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H. B. 헐버트)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R. 켄트릭) 이러한 비문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선교사들의 사랑과 열정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을 다 둘러보고 기도를 드리고 나오다가 선교 100주년 기념비에 새겨진 정연희 씨의 '양화진' 이라는 시를 읽으며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다. "가난과 질병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고…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외국인 묘지를 뒤로한 채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약 70분 정도를 내달려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암교회'. 1905년 이곳 사람인 안종후 씨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이 교회의 교인들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대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것을 이유로 23명의 교인들이 일본 경찰과 헌병들에 의해 이곳 교회당에서 불에 타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의해 불타 없어진 옛 교회 터에는 순교한 그들을 기리기 위한 3·1운동 순국기념비가 서 있었고, 바로 위에는 새로 지어진 교회당과 순교자 23인의 유골이 합장되어 있는 동산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동산 오른쪽에서 3월 1일에 개장할 예정인 순교기념관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순교하신 분들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며 교회에서 잠시 기도를 드린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승용차로 다시 약 7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기념관을 향한 산길로 올라가다가 순교자들의 비석들이 기념관 앞까지 길 양쪽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념관 앞뜰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심가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기념관 1층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집회실과 기독교 예술작품 전시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복음 전래 과정과 초기의 교회당 및 박해와 순교 장면을 묘사한 여러 개의 역사화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3층 순교자 기념실 및 순교 관계 역사자료실에는 순교자 약 300인의 초상화와 유물들이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이들 순교자 대부분은 이조 말기부터 일제 식민통치 시대를 거쳐 6·25 한국전쟁 중 순교한 분들이었다. 이제는 지나간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기념관 전시실 내에는 아직도 그들의 외침과 힘찬 설교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듯했다.

순교자기념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국 최초의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소래교회'로 발길을 돌렸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 내에 복원되어 있는 '소래교회'를 잠시 둘러본 우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서울로 향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사전 답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맴도는 요즘이지만 순교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순교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만평

글·그림 : 김범헌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김 지 혜 (고등부 교사)

고등부 소그룹인 chef(Christian's English Fellowship)를 맡게된 지 벌써 3년째 되어간다. 1999년 4월. 중등2부때 미국으로 이민간 후 9년 만에 학생이 아닌 교사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전과는 달리 보였다. 중등부 시절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같은 교사위치에 서게 되었으니 정말 세월이 빠름을 느꼈다. 이젠 아이들과도 많이 친숙해졌고 나름대로는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다.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는 남달리 어려보이는 외모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을 민망하게 만든 적이 많았다. "어머 얘! 넌 몇 학년이니?" 하고 물어보셨던 전도사님은 이젠 정중하게 존칭 붙이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며 "어머나, 저 학생은 벌써 화장을 하고 다니네!" 하며 관심을 보이셨던 선생님과도 지금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지낸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철없고 생각없는 어린 아이들이 절대로 아니다. 난 아이들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다. 아직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날 겸손하게 만든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았다. 때론 남몰래 눈시울을 적셔가며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언제나 노력해왔지만 언제나 아이들 앞에선 부끄럽고 부족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몇 주전 한 학생에게서 밤늦게 전화가 왔다. 몇몇 이쁜 녀석들이 가끔 나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난 내심 걱정을 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쌤(선생님)~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작년 말 잠시 교사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던 때가 생각나서 정말 미안했다. 모 영화 대사처럼 내가 교사를 그만두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내 마음에서 제쳐 놓은 것이 진정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고싶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에 지치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던 모습처럼 나 또한 아이들의 발 아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싶다. 진정한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묻는다면 수없이 많은 대답들이 나올 것이다. 그 무엇도 나에겐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른 교사들보다 아직 어리고 경험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무엇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착각하지 않는 교사가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

손 윤 아 (고등부)

1월 11일 오후 7시. 김동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고등부 부흥회가 열렸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는 주제로 '순결'에 관한 내용이었다. 솔직히 요즘 고등학생치고 순결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에겐 그 명쾌한 답이 절실히 필요했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심지어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까지! 유혹에 빠져들면서도 "아직 아니야"라며 스스로를 열심히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은 술, 담배, 친구들보다는 이성을 통해 아주 정당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니 목사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나, 말씀 안에 답이 있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주의 성전이면, 그것이 거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으로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거룩함은 다른 것과 구별됨이라고 하셨다. 세상과 구별되는 순결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우린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 현장에선 더더욱 그렇다.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선 각오고 다짐이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유혹이 많은 때에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다. 그러나 그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거다.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다. 나의 입술이, 나의 손이, 나의 생각이 간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을 좇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

병상일기

세례를 받고서…

문 봉 진 (강남병원 419호 환자)

먼저 이 글을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999년 6월14일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날이다. 일하던 회사에서의 대형 사고로 내 생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날이기 때문이다. 내가 맡은 기계에 두 다리가 양쪽 허벅지까지 빨려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인근 병원으로 옮기기까지의 시간에 실로 지옥을 실감했다. 기계에 눌려 2시간 동안 '살려주세요' 만 외쳐댔고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 119구조대 장비의 한계로 결국 용접기와 기중기를 동원하여 가까스로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죽어서 실려 갔다, 살아도 1급 장애인이 될 것이다' 하며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렸다고 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거치는 와중에서도 짬만나면 기도했다. 처음엔 간 수치가 안 좋아 수술도 어렵다고 했지만 50%확률로 수술을 강행했다.

수술에서 깨어난 후, 자주 들려 주시는 원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좋은 이야기는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아홉 번이나 계속 수술을 받던 중, 얼마 전 충현교회에서 꾸준히 전도해 주신 덕택으로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바라던 성경책을 선물받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작은 글씨로 된 해설까지 읽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또한 물리치료 때문에 이제 겨우 모세 5경을 마치고 지금은 사사기를 읽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현교회 전도대에 감사드린다.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김양녀 집사(여73세) 신부전증으로 관상동맥 절단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고길종 성도(남41세)*** 직장암과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410호실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옥경 권사(여96세)*** 다리 골절로 서울병원 406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7교구 이인광 집사(남54세) 빙판길 교통사고로 동수원 남양병원 512호실에서 입원해 있고, ***박갑순 성도(여72세)*** 심장에 물이 차는 증세로 경찰병원 726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남희 집사(여49세)*** 척추와 요추가 좋지 않아 입원하여 2주간 치료예정이고 ***정범용 성도(남72세)***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혈소판(혈액형A) 기증이 잘 되도록 기도부탁합니다

8교구 김용선 성도(남50세) 간경화와 간암으로 고생하던 중 아들의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부탁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몽골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유 호 순 (권사, 권사회 지회장)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이 예수님을 2001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먼나라 몽골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단기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하 30도의 추위가 계속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빛진자의 마음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힘든 언어를 배우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쟁터의 나가는 심자가의 군병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방갔던 곳의 많은 사람들과 노방전도시 만났던 영혼들의 마음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처음과 나중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몽골팀과 함께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도이야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심 영 숙 (집사, 8교구)

제가 89년도에 심한 불면증으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대병원에 원목실이 있어 저녁 8시면 환자를 위한 예배가 있어 매일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옆에 있던 환자들에게 함께 참석할 것을 권하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박종은 할머니와, 김경희 자매, 그리고 이진태 형제였는데 그들 모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박종은 할머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퇴원할 때가 되어 이진태 형제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성수동이라고 해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전화해 보니 무학교회에 등록하여 잘 다닌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병중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깨끗이 나아 매주 수요일에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회

권 향 임(19교구)

2년 전 직장에서 믿음이 좋은 동생 정윤이를 만나게 되었다. 정윤이(22)는 나이에 맞지 않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온유한 성격이었다. 그렇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당시 그런 정윤이가 난 부담스러웠고 정윤이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정윤이는 '언니, 저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며 복음을 전했다. 기회를 잃지 않으려는 그 모습에 나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내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곧 결혼할 형제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둘 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친구의 결혼할 형제는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에게 좀 들은 듯 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었다. 순간 나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 을 전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잠깐의 갈등을 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전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내게 기회가 온 것이다.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다음의 분위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복음을 전하던 중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기독교도 모든 종교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고, 나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같이 사랑하게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임 현 지 (유치부)

저는 천국이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께 여쭤봤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더욱 궁금했어요.

천국은요 교만한 사람이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또 죽는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천국은 아주아주 아름다워요 무지개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이 찬란해 해 보다도 더 눈부셔요.

그곳이 좋은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전도사님 말씀들을 때, 엄마가 말씀 읽어 주실 때, 기도할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천국이 생각나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궁금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세상의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현지야 왔니?' 하시겠죠.

우리 이웃 중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픈 사람들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주 유아부 친구들 몇 명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아직은 엄마의 손을 놓기 싫어하는 4, 5세 친구들로 5분이상 집중하는 것이 힘든 나이다. 단단하지 않은 연한 빛의 새싹들! 그 어린 순들에게 닿은 예수님의 임재를 찾아보려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기자 : 오늘 무엇을 배웠어요?
하영 : 여름과 겨울이요
희원 :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거예요
현민 : 봄, 가을도 있어요

기자 : 맞아요. 그럼 여름, 겨울, 봄, 가을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영, 희원, 현민 :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자 : 교회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은 :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 :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예은 : 하늘나라에 있어요.

기자 : 우리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시지요?
예은, 현민, 하영 : 예수님이요

끝으로 예은, 현민, 하영이가 말씀(창세기 1:1)을 암송하며 마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청난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아부 어린이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영혼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키가 자람에 따라 말씀과 기도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갈 유아부 어린이들의 성장을 소망합니다.

(권향임, 이명하 기자)

진리의 샘

'에스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❷

그리고 포로귀환의 역사를 머리 속에 그리시면서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유다백성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된답니다. 1차 귀환은 에스라서 1장-6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귀환이고, 2차 귀환은 에스라서 7장-10장에 묘사되는 에스라의 귀환이랍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의한 귀환이구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것인데, 에스더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장-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재건' 에 대한 내용이고, 7장-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한 '백성재건' 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율법 학사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귀환한 후 58년 후에 대부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귀환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도하게 된 것이지요. 스룹바벨에 의한 23년간의 성전 건축과 에스라에 의한 1년 동안의 영적 갱신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각성의 시기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을 읽으시면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또다른 것은, 회복이나 부흥을 시도할 때 늘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서 악한 영의 방해나 도전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순종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사항인데,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성전재건' 과 '영적부흥' 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할 명령이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신앙의 갱신과 부흥이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부흥이 여러분의 부흥이 되기를 기대해 볼까요?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나는 얼마 전 설날 연휴에 있었던 외선부 수련회에서 살아있는 드라마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 팀 교사인 나는, 수련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져 갔다. 항상 모든 일에 주춧이 되시던 선생님은 단기선교 중이고, 참석할 수 있는 교사라고는 나와 통역하시는 선생님 단 둘뿐인데다가 늘 수련회 때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중도에 모두 하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나의 걱정은 빗나가지 않았다.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참석한 사람은 단 한 명뿐, 하루종일 총 11명의 사람들이 다녀가기는 했지만 세 번이나 차로 모시러 가야 했고, 몇 사람을 기도원으로 태워서 오는 중간에도 어떤 이들은 기도원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또 , 오자마자 밥만 먹고 가겠다는 사람, 말도 없이 없어진 사람 … 마치 모아놓으면 볼볼이 흩어져 버리는 양떼들 같았다. 결국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는 처음 참석했던 그 한 명만이 그대로 남고 말았다. 몇 십 명씩이나 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많은 숫자에 마음이 놀리고, 그들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도데체 이 나라는 언제쯤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속이 상했다.

그러다가 별다른 기대 없이 마지막 성격공부 시간이 되었다. 통역선생님은 한 명 남은 형제에게 뱅갈어로 열심히 성경공부를 가르치셨고, 이미 마음 속에 실망감이 가득 찬 나는 꾸벅꾸벅 졸다가 형제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 우리 셋은 손을 꼭 잡고 엉엉 울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비록 그 시간은 기도원 가장 구석진 작은 방에서 우리 세 사람만의 비밀스런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때에 하늘에서는 나팔이 울리며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수많은 뭇 성도들의 환호하였으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한 사람의 모습림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처럼 무슬림이 강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무슬림이 아무 것도 아님을 왜 잊고 있었을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방글라데시 역시 다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히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방글라데시를 보며 낙심할 그때에도 언제나 함께 계셨는데…

요즘 힘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뒤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이 분명 작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부우연 안경을 좀 닦아야겠다.

(오지현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5일(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6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홀
3. 경찰전도회 월례회
   일시 : 11일(주일) 15:00
   장소 : 메추라기홀
4. 4교구 1지역 성도모임
   일시 : 6일(화) 18:00
   장소 : 만나홀
5. 감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교육관 208호
6.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교육관 212호(유아부실)
7. 권사 1지회 월례회
   일시 : 7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남녀 전도회

1. 바울 6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407호
2. 베드로 1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화) 19:00
   장소 : 교육관 109호
3. 한나 4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교구모임 장소
4. 에스더 3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205호
5.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주일) 15:00
   장소 : 칼빈홀
6.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307호
7. 루디아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유아부실
8. 마리아 4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화) 10:30
   장소 : 마리나 집사댁(592-2315)
9. 마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 2월8일(목) 10:30
   장소 : 양천구 목1동 934 101동 806호(6734-4910)

별 세

1. 심상준 은퇴집사
   (성학기 은퇴권사의 부군, 9교구 면목2구역) / 1월25일 별세, 1월27일 장례
2. 이은경 타교집사
   (박영신 권사의 자부, 12교구 화정2구역) / 1월30일 별세, 2월1일 장례
3. 강귀영 성도
   (김옥례 집사의 남편, 11교구 동숭구역) / 1월24일 별세, 1월26일 장례

결혼

1. 오필선 군(오광동 씨, 김경자 씨의 아들)과 황선희 양(황현철 안수집사, 김경애 집사의 딸, 10교구)/ 10일(토) 13:00 경남예식장 2층 실버홀(332-5252)

주소변경

1. 구명신 전도사
   강남구 역삼동 699-17 상신빌라 B02
   ☎ 3452-1491
2. 김용산 집사, 권미선 집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417-2 백마 중앙하이츠 103-403 ☎ 031-907-2619
3. 어수덕 권사
   금천구 시흥5동 916-10
   ☎ 802-5731
4. 이규숙 권사, 노종문 집사
   관악구 봉천 본동 두산APT 103-2101 ☎ 872-2682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9	김도연	1	한나		82	금정연	19	대학부	
60	김천수	1	한나		83	최현설	19	대학부	최현진(19)
61	김성옥	3	청년2부	김언정(3)	84	송부식	1	소망부	이명미(1)
62	강주원	4	고등부		85	안영준	2	소망부	오양옥(2)
63	공재학	4	바울	김희자(4)	86	유평숙	4	청년1부	
64	공성문	4	청년2부	김희자(4)	87	김화영	4	한나	
65	이경희	6	청년1부	이명진(15)	88	최경식	13	베드로	이진규(7)
66	김정연	6	중등부	이명진(15)	89	유이순	15	바울	
67	이무선	8	에스더	김순묵(1)	90	강향순	15	에스더	
68	김기봉	13	청년2부	오명자(13)	91	김일호	15	청년1부	김원대(15)
69	조수경	14	청년1부		92	엄미영	16	중등부	유혜선(16)
70	유현화	15	청년2부	심영란(19)	93	문대진	19	청년2부	정성현(12)
71	강덕필	1	루디아		94	이애영	19	중등부	
72	이영숙	19	청년1부	김춘식(6)	95	유완희	12	대학부	유현자(17)
73	김지희	19	대학부	장주연(16)	96	유지희	19	고등부	
74	성효정	19	대학부		97	민정현	19	대학부	김신영(9)
75	정기용	19	대학부		98	박성찬	19	대학부	
76	이준영	19	대학부	이진석(11)	99	김정은	19	청년1부	
77	박미경	19	대학부		100	박경아	19	청년2부	
78	조효진	19	대학부		101	백종민	19	청년2부	한보은(5)
79	문정영	19	대학부	신순보(19)	102	김철수	19	청년1부	
80	김태은	19	대학부		102	박지현	3	고등부	
81	김이진	19	청년2부		103	김종환	19	사랑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학생 신청서류 마감

대학, 대학원 신청자들은
논술 면접 실시
일 시 : 2월10일(토) 10:00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실용퀼트 안내

일시 : 매주 수요일 9:30 ~11:30
내용 : 쿠션, 방석, 가방, 인형, 이불 등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3개월과정)
문의 : 충현복지관(564-4885 # 3)

교회오시는길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준이' 성도를 소개합니다

믿음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는 동생의 전도로 주저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구원의 확신으로 기쁘고 이제 교회에서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겠다고 한다.

'양회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양회자 자매는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근심걱정이 많았는데 전에 살던 집근처에서 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사와서 조용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충현교회를 알게 되었고, 새가족부 집회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김기훈 ♥ 안정희' 예비부부를 소개합니다

김기훈 형제는 세례교인이고 식당을 경영하는데 안정희 자매가 그 식당에 오게 되었고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두 분이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형제 어머님은 자매의 신앙성장을 위해 충현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하셨다고 한다. 자매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며 성경말씀을 열심히 배우겠다고 한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성경연구원감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교구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봉사위원장
엄필성 청년3부장	강모용 봉사위원	오정헌 1교구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3교구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유아원감	김종구 17교구장	최무길 예배위원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사랑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봉사위원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전도위원장	박인건 13교구장	김인관 6교구장	이병옥 제3교육위원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7교구장	임무천 제2교육위원장	이종섭 청년2부장
최기홍 예배위원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건축위원장	전홍렬 9교구장
이정우 새가족부장	김단용 제1교육위원장	황영일 건축위원	손 철 4교구장
한송규 신혼가정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전도위원	김환기 기획위원
원웅철 12교구장	이형수 청년1부장	안동현 아멘찬양대장	황의만 대학부장
김구형 고등부장	최윤덕 실로암찬양대장	이계인 임마누엘찬양대장	박덕양 예배위원
이태식 10교구장	정태두 전도위원	박홍규 가브리엘찬양대장	권명옥 벧엘찬양대장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승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 선교사
정은희(수단) 권영일(수단) 최은아(수단) 권요셉(수단)
아브라함외 47명(수단)
허용구(르완다) 추진회, 이소영(스리랑카) 추은희(우간다)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강기엽(수단)
■ 찬양감독 강입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김정자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